지구 온난화를 막는 유일한 희망

평온하던 바닷가에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온다. 사람들은 놀라 도망치기 시작하고, 파도는 지옥 사자처럼 사람들을 뒤따라가 집어삼킨다. 방금 전까지 천국처럼 아름답던 풍광이 단 몇초 사이에 지옥으로 변해버리고..

이것은 2004년 12월 26일 남아시아를 휩쓸고 몇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해일 '쓰나미'의 모습이다. 이러한 거대한 해일은 온실가스에 의한 '지구온난화'의 여러 재앙 중 하나이며, 대표적인 원인은 이산화탄소 CO_2 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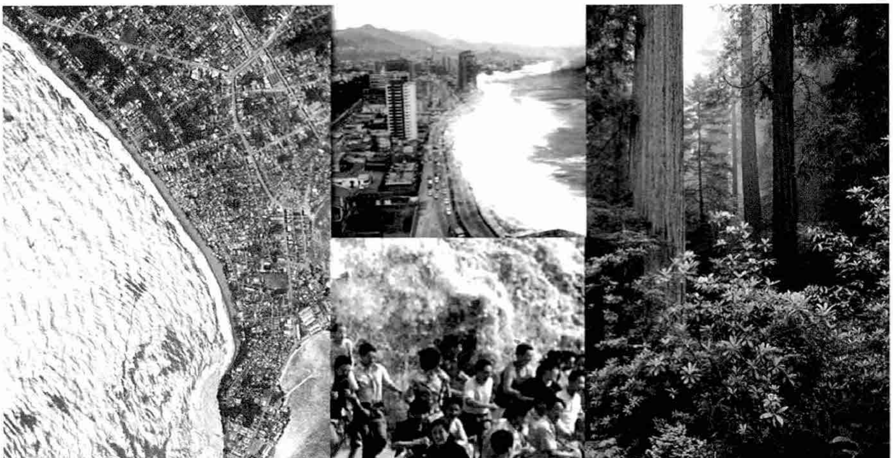
인간의 모든 활동은 CO_2 를 배출시키게 되는데, 그래도 점점 더워지는 지구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, 나무에 의한 CO_2 흡수가 있기 때문이다.

나무는 CO_2 한 분자를 흡수하고 O_2한 분자를 생산하게 되는데, 최근의 온실가스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나무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~8%에 이르는 매우 큰 양으로 알려져 있다.

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지 않는다면, 이번 쓰나미보다 더 강력한 해일이 전세계에서 일어나서 인류 전체를 공격하게 될지도 모르며, 그 참상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.

우리가 이러한 재앙에 대응하려면 나무를 심고 울창한 숲을 가꾸어야 한다.

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우리나라는 제 2의 쓰나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숲을 더욱 울창하게 가꾸어야 할 것이다. 올해에는 단 몇 그루의 나무라도 꼭 심어야겠다.



※ 자료출처 : 우리숲사이트 (http://www.woorisoop.org)